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6552

2008年8月 教育學碩士學位論文

대학수학능력시험 일본어과 문항 분석 연구

李 宥 貞

2008年 8月
敎育學碩士(日語敎育)學位論文

대학수학능력시험 일본어과 문항 분석 연구

- *2001~2008*학년도 문항을 중심으로 -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日語敎育專攻

李　宥　貞

대학수학능력시험 일본어과 문항 분석 연구

- *2001~2008*학년도 문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tem Analysis of Japanese in National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 Centering on the Items in 2001~2008

2008年　8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日語敎育專攻

李　宥　貞

대학수학능력시험 일본어과
문항 분석 연구

指導敎授　金　仁　炫

이 論文은 敎育學碩士(日語敎育)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합니다.

2008年　4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日語敎育專攻

李　宥　貞

李宥貞의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朝鮮大學校 敎授　朴 靑 國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敎授　金 仁 炫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副敎授　丁 意 祥　印

2008年　6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목 차

ABSTRACT ····· iii

제 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
3. 선행연구 ····· 3

제 2장 이론적 배경

1. 고등학교 일본어과 성격 및 목표 ····· 4
   1.1 일본어 교육과정의 성격 ····· 4
   1.2 일본어 교육과정의 목표 ····· 4
   1.3 일본어 교육과정의 언어재료 내용 ····· 6
2. 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영역 분석 ····· 9
   2.1 제2외국어영역의 개념과 평가목표 ····· 9
   2.2 제2외국어영역의 출제지침 ····· 10

제 3장 대학수학능력시험 일본어 문항 분석

1. 발음 및 문자영역 ····· 13
2. 어휘영역 ····· 20
3. 문법영역 ····· 26
4. 의사소통기능영역 ····· 31
5. 문화영역 ····· 48

제 4장 결론 ····· 56

참고문헌 ····· 60

표 목 차

<표 1> 기본 어휘와 사용 어휘 수의 변화 …… 7
<표 2> 발음 및 문자 영역 문항분석표 …… 13
<표 3> 발음 영역 문항분석표 …… 14
<표 4> 문자 영역 문항분석표 …… 16
<표 5> 문자 영역 유형별 문항분석표 …… 17
<표 6> 어휘 영역 문항분석표 …… 20
<표 7> 품사별 어휘율 …… 20
<표 8> 어휘 영역 유형별 문항분석표 …… 21
<표 9> 문법 영역 유형별 문항분석표 …… 27
<표 10> 문법 영역 문항분석표 …… 27
<표 11> 의사소통기능 영역 문항분석표Ⅰ(6차) …… 32
<표 12> 의사소통기능 영역 문항분석표Ⅱ(7차) …… 35
<표 13> 의사소통기능 영역 유형별 문항분석표 …… 40
<표 14> 문화 영역 문항분석표 …… 48

ABSTRACT

A Study on the Item Analysis of Japanese in National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 Centering on the Items in 2001~2008 -

Yoo-jung Lee
Advisor : Prof. In-hyun Kim Ph.D.
Major in Japanese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is to identify whether items of the Japanese examinations that were carried from 2001 to 2008 meet the educational goals and directions of questions through item analysis, tendency of questions and problem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aims to present desirable directions of future evaluation and its improvement plans.

Through the analytical research, we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as a result of analysing the specific areas in pronunciation and characters, it found that questions were inclined to characters while little attention was paid to pronunciation. And there were questions on asking pronunciation of each word. In the area of characters, various types of questions using figures or tables were presented, but as the examples presented in questions did not prove adequate, attractiveness as items is low.

Second, for the area of vocabulary, questions were inclined to only nouns, and for varied and abundant expression of Japanese, more questions to ask meaning of verbs and adjectives are needed. In general, many questions that help understanding of examinees using illustrations and tables were presented, but as it is important to identify the connotation of and how to use vocabulary even though it is easy to use, in evaluating vocabulary, pictures should be attached to measure composite perception ability.

Third, in the area of grammar, the weight of positional words and verbs is large and as specific questions, there were many questions to ask the use of case postpositions and conditional forms of verbs. As the examples of the questions were composed of sentences centering on communication, they meet the objectives of tendency of questions, but various types of questions were not presented.

Fourth, in the area of communicative skills, most of the questions deal with information delivery skills such as intention, message, suggestions, asking questions, permission, confirmation, and directions. However, as the questions put heavier focus on simple questions or request and direction, it is suggested that future exams should deal with various questions to measure communicative skills.

Fifth, the area of culture dealt with the outline of Japan, food, and annual events and festivals evenly, but as there were some questions that could not be solved without cultural background or knowledge, this study suggests that various questions that meet the objectives and directions of cultural education should be developed.

Therefore, this study analysed the questions of Japanese language at national college entrance exams and found that : the questions were relatively adequately presented, and the clues of correct answers were revealed in the beginning period of the exams, which was pointed out as a problem, but as years go by, the quality of the questions is being improved.

제 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교육에 있어서 평가란 교수-학습의 결과이자 다음 교육목표의 개선점 및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이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시험은 평가 결과가 학생 개개인의 대학 입학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의 교육과정 전반을 점검하는 데에 있어서도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1994학년도부터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외국어 영역에서 영어만 평가대상으로 삼았고, 제2외국어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 결과 제2외국어 교육은 현장에서 자연히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1997년 4월 '99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방안 연구 위원회'에서 국제화·정보화 사회를 지향하는 시대적 요구와 제2외국어 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선택적으로 제2외국어 시험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했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2001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일본어를 비롯한 제2외국어 영역의 평가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제2외국어 영역은 외국어 영역과는 달리 선택 교과의 한 영역으로 분류되면서 일본어 자체의 특이성을 살린 평가보다는 타 외국어와의 균형에 중점을 둔 시험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외국어를 같은 방법과 용도로 시험을 실시하다 보니 시험 출제 시 일본어 영역의 독자적인 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타 외국어를 고려해야 한다.

제2외국어영역에서 일본어과는 타 과목보다 응시자 수에서 상위를 차지하면서 많은 학생들의 선택과목으로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제대로 된 일본어의 평가 문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 영역의 한 과목으로서 더욱 공신력을 갖게 될 것이며, 나아가 교육현장에서도 일본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 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제 위치를 잡게 되는 하나의 방법이 되리라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2001학년도부터 2008학년도까지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일본어과 문항 분석을 통해 일본어 교육 목표 및 출제 지침에 부합되는지를 알아보고, 그 출제 경향과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01학년도부터 2008학년도까지 매년 30문항씩 출제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일본어과 240문항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1999)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 영역 출제 지침 개발 연구』에서 영역별로 균형 있는 출제를 위해 제2외국어 영역의 출제지침을 내용영역과 행동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행동영역은 언어이해, 언어표현, 언어이해와 표현으로 구분하며, 언어이해는 듣기와 읽기이고 언어표현은 말하기와 쓰기로 분류한다.

그러나 듣기, 말하기와 쓰기평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는 지필고사의 성격상 직접평가의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고, 각 요소간의 명확한 구분이 모호하다고 판단하여 본 논문에서는 내용영역에 해당하는 발음 및 문자, 어휘, 문법, 의사소통 기능, 문화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제2외국어 영역의 개념 및 성격을 조사하고 제2외국어 영역 출제지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론적 배경을 알아본다.

둘째,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지침을 근거로 하여 일본어과 문항을 내용영역별로 나누어 연도별로 비교하고, 각각의 문항 내용이 일본어 교육과정의 평가 목적에 맞게 출제 되었는지 분석한다.

셋째, 위 자료를 통하여 일본어과 문항의 특징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시행될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고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매뉴얼의 기준에 맞추어 논자의 해석으로 분류한 것이므로 최대한 주관을 배제하였더라도 분석 내용에 있어 출제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분류될 수 있음을 분석에 앞서 밝혀두고자 한다.

3. 선행연구

신규옥(2006)은「대학수학능력시험 일본어과 문항 분석」에서 2001~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일본어과 문항이 출제 지침에 따라 출제 범위 내에서 제대로 출제되었는가를 시작으로 유형별 문항 분석을 통해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특징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도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실제 출제 영역의 비율이 출제 지침이 지향하는 목표와 상이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그 방안으로는 단순한 암기력보다는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 개발, 출제 지침의 준수, 변별력 있는 평가를 위한 문항 배점 조정, 다양한 문항 유형의 개발과 어휘의 사용,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춘 평가 방법을 추구할 것을 주장하였다.

김민철(2006)은「대학수학능력시험 일본어과 문항 분석」에서 2001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수능시험 일본어과의 내용영역 가운데 '의사소통 기능'영역에 해당하는 문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해가 거듭할수록 문항 구성이 더욱 다양해지거나 사실 자료를 활용한 문항의 증가, 대부분의 하위 항목이 균형 있게 제시된 점을 바람직한 변화라고 말하면서 공통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을 주장하였다.

서성희(2006)는「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 평가영역에서 일본어 문항 분석 및 개선방안」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 영역 출제지침과 2005학년도와 2006학년도 일본어과 수학능력 문항을 근거로 하여 내용영역의 평가를 요소별로 나누어 각각의 문항 내용과 문항의 구성이 일본어 교육과정의 평가 목적에 맞게 출제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발음영역에 대한 문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출제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 출제 문항수를 전문가들의 재검토 아래 적절히 배분할 것, 12종 교과서 범위 내에서의 단어들을 출제할 것, 문법중심의 문제를 지양하고 의사소통 기능 중심의 언어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을 주장하였다.

제 2장 이론적 배경

1. 고등학교 일본어과 성격 및 목표[1)]

1.1 일본어 교육과정의 성격

인접 국가라는 지정학적 관계로 한·일 양국의 교섭의 역사는 매우 길다. 오늘날과 같이 각 지역을 단위로 한 정치·경제적 통합이 확산되는 시대에는 같은 동북 아시아 지역 국가로서의 긴밀한 협력 체제의 구축을 생각할 때, 한국과 일본의 상호 협력과 이해의 필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 일본어 과목은 그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기초적인 과목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지역 내의 원활한 교류 및 평화적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돈독히 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애정을 가지는 기본 자세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일본어 과목은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만이 아니고, 한국의 문화를 일본에 소개하여 양국의 상호 이해를 돈독히 하는 기초적 역량을 기르는 과목이다. 양국의 각종 교류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가진 인재의 양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1.2 일본어 교육과정의 목표

일본어과의 총괄적 목표는 기능적 목표와 정의적 목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기능적 목표
  (가) 일상생활 이본어의 이해
  (나) 일본어에 의한 의사소통 능력
  (다) 일본어 정보의 검색 능력

(2) 정의적 목표
  (가) 의사소통과 정보 검색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

---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0), 『고등 학교 교육 과정 해설(12)-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아랍어)』, pp.215-236.

(나) 일본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
(다) 일본인과의 의사소통 및 국제 교류에 능동적으로 임하는 자세

일본의 과목의 하위 목표는 언어의 네 기능을 중심으로 한 의사소통 기능 목표 및 정의적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그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기능적 목표 : 의사소통기능의 항목별 신장
(가) 일상의 의사소통기능 수행을 위한 쉬운 일본어를 들어 이해하는 기능
(나) 일상의 의사소통기능 수행을 위한 쉬운 일본어를 말하는 기능
(다) 일상의 의사소통기능 수행을 위한 쉬운 일본어를 읽고 이해하는 기능
(라) 일상의 의사소통기능 수행을 위한 쉽고 간단한 일본어를 글로 쓰는 기능
(마) 인터넷을 통해 일본어로 정보를 검색하는 기능

(2) 정의적 목표 : 일본 문화의 이해와 적극적인 교류 자세
(가) 일본의 일상 생활 문화에 대한 이해
(나) 언어의 네 기능 습득의 필요성 이해
(다) 언어의 네 기능 학습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
(라) 일본어에 의한 정보 검색과 통신에 대한 흥미 유발
(마)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과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

외국어로서 일본어 교육의 주된 목표는 일본어에 의한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 데에 있다. 제6차 교육과정부터는 의사소통 능력을 중심으로 한 실용성을 중시한 일본어 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문화의 이해와 상황에 맞는 언어 사용 능력의 신장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일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 과거 불행했던 한·일 관계사에 따른 학습자의 갈등은 다른 언어에서는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학습 효과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향후의 한·일 관계 정립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일본어 교육에서는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기능 교육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일본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하고, 일본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올바른 일본관을 가지게 하는 태도 교육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3 일본어 교육과정의 언어재료 내용

(1) 의사소통기능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일본에서 행해지는 기능 분류 이론에 입각하여 일본어만의 의사소통기능을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가) 인사 기능 : 일상의 인사, 안부, 칭찬, 격려, 축하, 감사, 위로

(나) 정보 전달의 기능 : 설명, 정보 전달, 제안, 조언, 안심, 불필요, 자청, 대답, 추측, 의사표시

(다) 의사 · 태도 전달의 기능 : 반론 · 의문 제기, 부정 · 비난, 태도보류 · 판정 회피, 놀람 · 의외의 기분, 희로애락, 반문, 유감

(라) 요구의 기능 : 질문, 허가, 확인, 선택, 설명, 의뢰, 지시, 의무, 금지

(마) 담화의 전개 기능 : 담화의 시작, 담화의 전개, 화제의 전환, 담화의 종결

(2) 발음

현대 일본어의 공통어 발음으로 한다. 유창성을 중시하는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는 정확한 발음 지도보다는 자연스러운 발음을 지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의사소통 중심 학습의 경우, 유창성을 강조하다 보면 정확한 발음지도가 소홀해지기 쉬우나, 의미 변별에 영향을 미치는 발음은 정확하게 변별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3) 문자

문자는 기본적으로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사용하되, 한자는 일본어의 상용한자용 글자체를 사용하며, 제7차 교육과정에 제시한 표기 한자의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다만, 고유명사에 사용되는 한자는 예외로 하며, 제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한자는 학습량을 고려하여 읽기와 쓰기를 구분하여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4) 어휘

제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본 어휘를 중심으로 500낱말 내외를 사용한다.

고등학교 일본어 교육과정에 기본 어휘가 선정, 제시된 것은 제4차 교육과정 부터인데 첫 번째 수정안인 제5차 때부터 일본에서 보고 된 일본어 교육용 기본 어휘를 근간으로 작성되기 시작하였고, 제6차 때 두 번째의 수정을

거쳐,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표는 세 번째 수정되었다. 그 동안의 기본 어휘와 사용 어휘 수의 변화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기본 어휘와 사용 어휘 수의 변화

	4차	5차	6차	7차
기본 어휘 수	754	846	771	833
사용 어휘 수	2,200	1,800	1,400	900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사용어휘 수가 적으며, 또 기본 어휘 수와 사용 어휘 수의 차이도 적은데 이는 어휘의 양적 확대를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다.

(5) 문법

문법에 관한 사항은 제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예시문의 해당 사항을 참고한다. 다만, 다음 문법사항은 다루지 않기로 한다.

(가) 고어적인 표현 (예 :べし,まい)

(나) 지나치게 복잡한 문법 사항 (예 : 사역+수동;歌わせられる, ださせていただく)

(다) 지나친 존비어 (예 :さようでございますか)

(라) 지나치게 격식 차린 구어 표현 (예 :ほんじつは, ～であります)

(6) 문체

문장체와 구어체 및 남성어와 여성어, 공소한 표현을 고르게 사용한다. 의사소통 기능은 구어 표현에만 국한되지 않고 문자를 통한 의사 소통 기능 또한 중요하다.

일본어는 언어의 사용 장면과 상대에 따라 문체가 달라지는 특징이 있어서 이러한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본어 과목은 듣기와 말하기를 먼저 학습하게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구어 표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한 결과 구어체만 중시되기 쉬우나 독해와 쓰기 학습을 통해 문장체 또한 익힐 수 있어야 한다.

(7) 문화

일상적인 생활 문화를 소재로 선택하되, 의사소통 능력 습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한다.

(가) 개인 생활과 일상적인 인간관계에 관한 것

(나) 교우 관계와 학교생활에 관한 것

(다) 기본적인 사회생활에 관한 것

(라) 취미, 오락, 관광 등 여가 선용에 관한 것

(마) 일본인의 언어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바) 일본인의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사) 우리 문화에 관한 것

2. 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영역 분석[2)]

2.1 제2외국어영역의 개념과 평가목표

(1) 시험의 개념

제2외국어 영역 시험은 기초적인 제2외국어 의사 소통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제2외국어가 대학 교육에서 도구 과목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반영하여 대학에서 학문을 연마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개념을 규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념에 따라 시험의 성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제2외국어Ⅰ(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영역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학교 교육을 통해 배양된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언어에 대한 지식보다는 언어 사용 능력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는 시험이다.

(2) 평가목표

제2외국어 영역의 평가 목표는 발음 및 철자의 식별력, 어휘력, 문법 이해력, 의사소통기능의 이해 및 활용 능력, 문화 이해 능력을 기본으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하위 평가 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 발음 및 철자의 식별력

- 외국어 자·모음의 발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 자·모음 결합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 단어와 단어 연결시 발음의 변화를 이해하고 있는가?
- 외국어 철자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가?
- 소리와 철자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2) 어휘력

- 단어의 일차적 의미 및 맥락적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가?
- 단어들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있는가?
- 관용적 표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4),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매뉴얼』, pp.5-13.

(3) 문법 이해력

- 어법에 맞는 표현, 잘못된 표현 등을 찾아낼 수 있는가?
- 문장의 구조와 단어의 의미를 연결할 수 있는가?
- 적절한 시제, 동사의 변화형 등을 파악할 수 있는가?

(4) 의사소통 기능의 이해 및 활용 능력

-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의사 소통 기능과 예시문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5) 문화 이해 능력

- 일상의 언어 사용과 밀접히 관련된 문화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가?

2.2 제2외국어영역의 출제지침

(1) 일반지침

- 고등학교 교육과정 제2외국어Ⅰ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배양된 기초적인 외국어 능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한다.
- 제2외국어 영역의 7개교과목간의 난이도 문제 조정을 위해 표준 점수로 점수를 비교하지만 점수분포에 따라 선택과목간 유·불리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선택과목간 난이도 조정에 특히 유념하여 출제한다.
- 교육과정 제2외국어Ⅰ을 정상적으로 학습한 학생들이면 누구나 쉽게 답할 수 있도록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문항을 출제한다.
-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잘 평가할 수 있도록 문법중심의 측정을 지양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생활 외국어의 언어 사용 측면이 강조된 평가 문항을 출제한다.

(2) 출제범위

(가) 발음 및 철자

발음 및 철자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기본 어휘의 발음 및 철자의 범위 내에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과별 특성에 따라 강세, 연음, 억양 등과 관련된 문항을 출제할 수 있다.

(나) 어휘

어휘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기본 어휘의 범위 내에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본 어휘표와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에 없는 단어는 주석을 달아준다. 일본어의 경우, 한자의 사용한계는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에 나타난 한자, 그리고 '표기용 한자'에 제시되어 있는 한자의 범위내에서 학습한다.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과 '표기용 한자'에 없는 한자를 출제할 경우 주석을 달아 준다.

(다) 문법

일본어Ⅰ과목은 별도의 추가 제외 문법 사항 없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의사 소통 기능 예시문의 해당 사항과 보편적인 문법 사항 위주로 출제한다.

다만, 다음 문법 사항은 다루지 않기로 한다.

- 고어적인 표현(예 :べし,まい)
- 지나친 존비어(예 :さようでござおます)
- 지나치게 격식 차린 구어표현(예 :ほんしつは,～であります)

(라) 의사소통 기능 및 예시문

의사 소통 기능의 이해 및 활용 능력 평가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의사 소통 기능, 즉 인사기능, 정보 전달의 기능, 의사·태도의 전달, 요구의 기능, 담화 전개 기능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사용하는 문장은 의사 소통 기능 예시문을 참조하되 제2외국어Ⅰ수준에 적절한 문장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마) 문화

문화 이해 능력의 평가는 초기 외국어 학습 수준에서 사실상 폭넓은 의미의 문화 이해에 대한 평가를 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해당 외국어 사용 국가의 일상 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문화와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문화 이해 평가의 범위를 규정지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평가 내용은 가정 생활, 학교 생활, 사회 생활과 관련된 것, 취미, 오락, 스포츠, 여행 등 여가 선용에 관한 것, 각 나라에 독특한 문화, 예컨대 요리, 음악, 무용, 문화재 등에 관한 것 등이다.

(3) 제작문항수 및 배점별 문항수

문항수는 총30개이며 시험 기간은 40분으로 문제를 푸는 시간은 문항당 약 1분20초가 소요된다.

동점자를 줄이고 문항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문항의 특성에 따른 차등배점제를 도입한다. 문항당 배점은 1점, 2점으로 하고 1점 문항은 10개(총10점), 2점 문항은 20개(총 40점)로 차등 배점한다.

(4) 구체적 시행 지침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이 고르게 포함되도록 영역별로 균형 있게 문항을 출제한다.

(가) 내용 영역

발음 및 철자 : 10%(3개 문항), 어휘 : 10%(3개 문항), 문법 : 17%(5개 문항), 의사소통기능 : 53%(16개 문항), 문화 : 10%(3개문항)

(나) 행동 영역

언어이해 : 33%(10개 문항), 언어표현, 언어이해와 표현 : 67%(20개 문항)

단어는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표에 제시된 단어와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의 단어를 사용하되 기본 어휘표와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단어를 사용할 경우는 주석을 단다. 문맥과 고립된 문항 출제를 지양하고 문맥을 통하여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안내문, 지도, 도로표지, 광고 등의 '사실 자료'를 활용한 평가 문항의 출제를 권장한다. 듣기 평가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다.

제 3장 대학수학능력시험 일본어 문항 분석

1. 발음 및 문자영역

발음 및 문자의 식별력 평가의 구체적인 하위 평가 요소는 외국어 자 · 모음의 발음의 정확한 이해, 자 · 모음 결합 관계의 정확한 이해, 단어와 단어 연결시 발음의 변화 이해, 외국어 철자의 정확한 인식, 소리와 철자와의 관계를 이해하는가이다.

발음 및 문자의 평가는 가능한 한 문장 수준에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낱낱의 소리는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고, 맥락 안에서 발음 및 철자의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평가 대상이 되는 발음 및 문자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기본어휘의 발음 및 문자의 범위 내에서 출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과별 특성에 따라 강세, 연음, 억양 등과 관련된 문항을 출제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난해하거나 어려운 발음 및 철자는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표 2> 발음 및 문자 영역 문항분석표

세부항목	문 항 번 호								합계	비율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발 음	2	3	2				3		4	17
문 자	1,3	1,2,4	1,3	1,2	1,2,3	1,2,3	1,2	1,2,3	20	83
합 계	3	4	3	2	3	3	3	3	24	100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발음 및 문자 영역은 30문항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3문항을 출제한다. 다음 표의 분석결과 발음 및 문자영역에서는 발음이 17%, 문자가 83%를 차지했다. 수학능력시험에서 발음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1)발음영역

일본어 교육의 첫 단계는 발음과 문자의 교육이다. 특히 발음 교육은 일본어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끊임없이 병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그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초기단계에서 잘못 익숙해진 발음은 고치기가 매

우 어렵고, 학습자의 발음, 말하기 능력, 읽기 능력뿐만 아니라 듣기 능력, 쓰기 능력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항목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하다.

<표 3> 발음 영역 문항분석표

세부항목	문 항 번 호								합계	비율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청음·탁음	2								1	25
발음기호		3							1	25
장 모 음			2						1	25
발음의 길이							3		1	25
합 계	1	1	1				1		4	100

분석결과 발음영역에서는 청음·탁음, 발음기호, 장모음, 발음의 길이에 관한 문항이 각각 1문항씩 출제되었다. 난이도가 높은 「ん」발음과 의미변별에 영향이 적은 악센트나 억양 등의 문항은 출제되지 않았다.

<청음·탁음 (2001)>

2. 빈칸에 들어갈 발음을 바르게 표기한 것은?

A : もう 帰っても いいですよ。
B : どうも あり_____ございます。

① がとう ② かどう ③ かとう ④ がどう ⑤ あどう

청음과 탁음의 발음의 구분하여 사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내용영역의 하위 평가 요소 중에서 소리와 철자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출제지침에서 낱낱의 소리는 실제 의사 소통 상황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고, 맥락 안에서 발음 및 철자의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능한 문장 수준에서 평가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므로, ‘がとう’보다는 ‘ありがとう’의 단어 차원을 공백으로 두는 쪽이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ありがとう’보다는 청·탁음의 차이로 다른 의미를 갖는 'かぐ','かく','がく' 등을 이용한 문항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발음기호 (2002)>

3.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글자를 바르게 읽은 것은?[1점]

母は デパートへ 行きました。

① [ha] - [e]　② [wa] - [we]　③ [wa] - [he]
④ [ha] - [he]　⑤ [wa] - [e]

조사의 발음에 대해 묻는 문항이다. 일본어 가나 가운데 'は'와'へ'는 조사로 사용되는 경우 본래의 음가에서 변화하여 [wa],[e]로 발음이 된다. 일본어에서 특이하게 음가가 변화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발음 영역에서 필수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문항이였다.

<장 모 음 (2003)>

2.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1점]

(1) 田中さんの _____ は 先生です。
(2) キムさんの _____ も 先生です。

	(1)	(2)		(1)	(2)
①	おとさん	おかさん	②	おとおさん	おかさん
③	おとうさん	おかさん	④	おとさん	おかあさん
⑤	おとうさん	おかあさん			

장모음에 대해 묻는 문항이다. 일본어에서는 모음의 장단이 변별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장모음은 중요한 학습 항목이다. 예를 들면 おばあさん(할머니)-おばさん(아주머니), おじいさん(할아버지)-おじさん(아저씨)이 있다. 그러나 위 문항은 대화문을 보지 않아도 おかあさん(어머니)과 おばあさん(아버지) 단어의 철자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항이다. 발음영역의 문항이므로 장단음을 이용한 의미 변별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이 요구된다.

<발음의 길이 (2007)>

3. 밑줄 친 말과 발음의 길이가 같은 것은?

A : 田中さん、ひるごはんどこでたべましたか。
B : 会社の食堂で食べましょう。

① 授業　② 用事　③ 漢字　④ 上手　⑤ 高校

요음의 박에 관한 문항이다. 일본어는 오십음도에 나오는 가나 1글자가 1박을 가지는 가운데 특수박인 촉음과 발음도 가나 1글자가 1박의 길이를 가진다. 하지만 요음은 바로 앞의 가나와 합쳐서 1박이 된다. 답지의 ①번과 ④번은 요음이, ②번과 ⑤번은 장음이, ③번은 장음이 쓰였다. 요음처럼 생김이 같은 작은 글자로 쓰인 촉음을 답지에 제시하였더라면 특수박 모두 묻을 수 있는 문항이 되었을 것이다.

(2)문자영역

일본어의 문자는 「가타카나」「히라가나」「한자」가 사용되고 있다. 다양한 문자를 나누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듣는 언어로서 이기보다 보는 언어로서의 특징이 강한 언어로서 일본어 문자 학습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표 4> 문자 영역 문항분석표

세부항목	문 항 번 호								합계	비율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히라가나	1	1,4	1,3	1	1,3		2	2	10	50
가타카나					2	2	1	1	4	20
한 자	3	2		2		1		3	5	25
로 마 자						3			1	5
합 계	2	3	2	2	3	3	2	3	20	100

분석 결과 히라가나를 물어보는 문항이 10문항으로 50%, 가타카나 4문항 25%, 한자 5문항 25%, 로마자가 1문항으로 5%를 차지하고 있다. 가타카나에 대한 문항은 2004년도까지 다루지 않았으나 실제 일본에서는 히라가나나 한자 못지않게 사용하고 있어 이를 감안하여 출제된 것으로 생각된다. 로마자를 묻는 문항은 2005년부터 제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어 추가된 목표 중 일본어로 정보를 검색하는 기능을 평가하기위해 출제된 것으로 생각된다.

<표 5> 문자 영역 유형별 문항분석표

세부항목	문 항 번 호								합계	비율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히라가나 → 한자	3					1			2	10
한자 → 히라가나			1					2,3	3	15
한자 ↔ 히라가나		2		2					2	10
숫자 → 히라가나		1	3				2		3	15
히라가나 → 숫자	1								1	5
로마자 → 히라가나						3			1	5
그림·빈칸 공통 문자 찾기		4		1	1,2		1	1	6	30
기 타					3	2			2	10
합 계	2	3	2	2	3	3	2	3	20	100

문자영역의 유형을 보면 히라가나를 읽고 한자로 쓰거나 한자를 보고 히라가나로 쓰는 문항이 총 7문항으로 35%, 숫자를 히라가나로 읽거나 반대로 히라가나를 숫자로 쓰는 문항이 총4문항으로 20%, 로마자를 히라가나로 쓰는 문항이 1문항으로 5%, 그림이나 빈칸에 공통 문자를 찾는 문항이 6문항으로 30%, 기타 문항이 2문항으로 10%를 차지하고 있다.

<히라가나 → 한자 (2006)>

1. 다음 낱말을 한자로 표기할 때, 공통으로 들어갈 글자는?[1점]

① 今　② 年　③ 生　④ 先　⑤ 学

히라가나로 나타난 낱말의 해당 한자를 고르는 문항이다. 한자는 일반 사회 생활에서의 사용 기준을 정한 상용한자 (1981.10) 1945자가 정해져 공적인 자리에 사용되는 한자의 기준이 되고 있지만, 현재의 고등학교 수업시수로 1945자를 모두 학습한다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최초로 표기용 한자를 설정하여 733자로 제한하였다. 표기용 한자란 교과서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반드시 학습해야하는 한자의 범위가 아님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기용이므로 읽을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이 무방하며, 쓸 수 있는 수준까지 요구하는 것은 학습량 과다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이라고 7차 교육과정에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히라가나를 제시하고 한자로 바꾸는 문항은 지양되어야 한다. 수학능력시험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문항은 출제율이 매우 낮다. 위 문항은 기초어휘를 선택하여 문제를 제시한 비교적 단순한 문항이다.

<한자 → 히라가나 (2008)>

2. 밑줄 친 부분을 히라가나로 바르게 표기한 것은?

しけんの ために 一日 5時間 べんきょうしました。

① いちひ ② いちび ③ いちにち
④ いっにち ⑤ ついたち

한자의 음독과 훈독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다. 중국어나 한국어에서의 한자 읽는 법은 대개 1자1음이 원칙이지만 일본어에서는 대개의 한자가 음독과 훈독 등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읽혀진다. 음독이란 한자가 일본으로 들어왔을 당시 그 한자가 가진 중국식 발음이 일본어 안으로 도입된 것을 말하며, 그 한자의 의미에 상당하는 일본어에 읽기 방법을 붙인 것이 훈독이다. 음과 훈이 있다는 점이 일본어 한자 읽기를 복잡하게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3] 위 문항은 이러한 일본어만의 특징을 평가한 문항이라 할 수 있다.

<한자 ↔ 히라가나 (2004)>

2. 한자를 일본어로 읽어 끝말잇기를 할 때, 빈칸에 들어갈 한자로 알맞은 것은? [2점]

学校 → ____ → 映画

① 人 ② 中 ③ 海 ④ 下 ⑤ 上

한자를 히라가나 바꾸는 유형과 히라가나를 한자로 바꾸는 유형이 합해진 문항이다. 히라가나에서 한자로, 한자에서 히라가나로 바꾸는 유형이 문자영역 20문항 중 7문항 출제되어 35%를 차지하고 있다.

3) 김혜진(2006),「韓国人日本語学習者의 日本語漢字읽기 教育에 관한 研究」,p.3.

<숫자 → 히라가나 (2003)>

3. 밑줄 친 숫자를 바르게 읽은 것은?

A : すみません。この 本、おねがいします。 B : はい、1,300円です。

① せんさんはく　② せんさんばく　③ せんさんひゃく
④ せんさんびゃく　⑤ せんさんぴゃく

숫자를 히라가나로 표기하는 문항이다. 숫자의 백 단위를 읽을 때 앞에 오는 수에 따라 'ひゃく''びゃく''ぴゃく'로 읽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타 유사 문항으로 10단위의 숫자를 읽는 문항과 월일을 묻는 문항이 있다.

<히라가나 → 숫자 (2001)>

1. 다음 전화 번호를 숫자로 바르게 옮겨 적은 것은?

よん いち はち の いち さん なな ろく です。

① 358 - 2466　② 357 - 1427
③ 458 - 2376　④ 418 - 1376
⑤ 457 - 1327

숫자에 관한 문항이다. 숫자를 읽는 단순한 문항으로 난이도가 낮은 문항으로 판단된다. 위 문항을 선행논문들에서는 발음영역으로 분류하기도 하였으나 소리와 철자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문항이라고 판단하여 본고에서는 문자영역으로 분류하였다.

2. 어휘영역

어휘력 평가의 구체적인 하위 평가 요소는 단어의 일차적 의미 및 맥락적 의미의 이해, 단어들 사이의 연관성 이해, 관용적 표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가이다.

어휘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기본 어휘의 범위 내에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본 어휘표와 의사 소통 기능 예시문에 없는 단어는 주석을 달아 준다.

<표 6> 어휘 영역 문항분석표

세부항목		문 항 번 호								합계	비율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명 사	보통명사	4,5,6	5,6	5	3,4,6	5,6	4,6	4,5	5	16	64
	때를나타내는 명사							6		1	4
ｲ형용사						4			6	2	8
동 사				4	5		5	11		4	16
부 사	정도부사			6					4	2	8
합계		3	2	3	4	3	3	4	3	25	100

분석 결과 명사를 물어보는 문항이 17문항으로 68%, 동사 4문항 16%, ｲ형용사와 부사가 각각2문항씩 8%를 차지하고 있다. 어휘 영역에서는 명사에서 출제가 치중된 것을 알 수 있다.

12종 교과서의 어휘를 품사에 의한 분류를 통해 비율을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4)]

<표 7> 품사별 어휘율

품사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기타	합계
별개어휘 수	1,152	238	79	52	190	1,711
분포도	67.3	13.9	4.6	3.1	11.1	100

4) 박행자(2005),『제7차 교육과정의 중·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 어휘 분석』동아시아일본학회, pp.87-88.

제7차 기본어휘는 전반적으로 명사를 중심으로 동사, 형용사, 부사, 기타 순으로 기본어휘가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명사에 관계된 어휘가 전체 기본어휘수의 67.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12종 교과서 모두 명사가 많고 동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어휘영역의 품사별 분류를 보면 명사를 묻는 문항이 68%를 차지하고 있다. 다양하고 풍부한 일본어 표현을 위해서는 동사와 형용사의 의미를 묻는 문항도 더욱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표 8> 어휘 영역 유형별 문항분석표

세부항목	문항번호								합계	비율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상위어 → 하위어		5	5			4			3	12
하위어 → 상위어	6			4,6			5		4	16
반의어					4			6	2	8
관용구			4	5		5	11	5	5	20
주제어 찾기	5	6			5		4		4	16
빈칸 어휘 고르기	4		6				6	4	4	16
그림 어휘 고르기				3	6	6			3	12
합 계	3	2	3	4	3	3	4	3	25	100

어휘영역의 유형을 보면 상위어와 하위어를 찾는 문항이 7문항으로 28%로 가장 많이 출제되었고 관용구에 관한 문항 5문항으로 20%를 차지했다. 출제 문항수에 비해 어휘영역은 다양한 문항 유형이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위어 → 하위어 (2006)>

4. 밑줄 친 말에 해당하지 <u>않는</u> 것은?[1점]

これは わたしの <u>家族</u>の しゃしんです。

① あに ② あね ③ はは ④ どなた ⑤ おとうと

상위어를 제시하고 해당하는 하위어를 고르는 문항이다. 이러한 유형은 총 3문항이 출제되었는데 타 문항은 상위어를 한국어로 제시였는데 그보다 위 문항처럼 문장과 함께 상위어를 일본어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위어 → 상위어 (2007)>

5. 빈칸 (1)~(5)를 채워 완성된 말과 관련이 있는 것은?

→	が	い	(1)	く	
	→	て	(2)	き	
	→	お	(3)	あ	さ	ん
	→	ど	(4)	な	
		→	(5)	た	ら	く

① あに
② あね
③ はは
④ どなた
⑤ おとうと

단어들의 공통점을 묻는 즉 하위어를 제시하고 상위어를 찾는 문항이다. 이러한 유형은 총 4문항이 출제되었는데 타 문항은 완성된 단어를 제시거나, 보기를 한국어로 제시하였다. 위 문항은 기존의 문항보다 발전된 형태의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반의어 (2005)>

4. 밑줄 친 두 낱말의 의미관계와 같이 짝지은 것은?

A : 田中さんの 部屋は ひろいですか。
B : いいえ、ぼくの 部屋は せまいです。

① たかい - おおい
② やすい - ひくい
③ ながい - みじかい
④ おそい - うつくしい
⑤ ちいさい - おもしろい

형용사의 반의 관계에 관한 문항이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형용사의 뜻만 알고 있다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항이다. 어휘 영역에서는 반의 관계 뿐 만 아니라 한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의 출제도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たかい'라는 형용사는 높다와 비싸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를 이용한 문항의 출제도 요구된다.

<관용구 (2008)>

4.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 : あの _____をかけているかたはどなたですか。 B : ああ、山田さんです。

<보기> a.おふろ b.じしょ c.でんわ d.めがね

① a,b ② a,d ③ b,c
④ b,d ⑤ c,d

관용적 표현에 관한 문항이다. 어휘영역 총 25문하중 5문항이 출제되어 20%의 비교적 높은 출제율을 나타내고 있다. 5문항중 3문항은 관용표현에 알맞은 동사를 고르는 문항이였고, 1문항은 관용표현이 바르게 쓰인 것을 고르는 문항이였다. 위 문항은 보기에 명사를 제시하여 'かける'와 함께 쓰일 수 있는 명사를 고르는 문항이다.

<주제어 찾기 (2007)>

4. 다음 문장이 공통으로 나타내는 것은?[1점]

° どこか しらない まちを あるいて みたい。 ° どこか ゆうめいな ところへ いって みたい。

① きせつ ② くすり ③ かぞく ④ うんどう ⑤ りょこう

지문을 읽고 주제어를 유추하는 문항이다. 전체적인 내용 이해를 통해 '여행'을 유추해 내는 문항이다. 어휘력 평가의 하위 평가 요소 중 단어의 맥락적 의미이해 또는 문제해결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문항은 의사소통영역의 주제 찾기 유형과도 비슷하므로 어휘 평가 문항으로서의 차별성을 갖지 못했다.

<빈칸 어휘 고르기 (2007)>

6. 빈칸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ことばの あそびです。 『きのうの_____は きょうの_____です。』 ＊あそび：놀이

① あした - あさって　　② あした - おとと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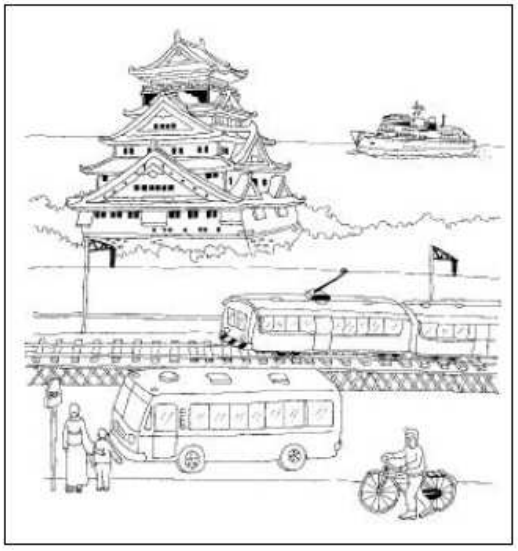
③ おととい - あした　　④ あさって - あした

⑤ あさって - おととい

빈칸에 알맞은 어휘를 고르는 문항이다. 답지 제시된 어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답을 찾을 수 있다. 빈칸에 알맞은 어휘를 고르는 문항은 총 4문항이 출제 되었는데 그 중 2문항이 부사를 고르는 문항이였고, 1문항은 의사소통 예시문을 사용한 문항이였다. 위 문항의 경우 지문에 일본어의 특징을 나타낸 ことば あそび를 이용한 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림 어휘 고르기 (2005)>

6. 탈것 중에서 그림에 <u>없는</u> 것은?[1점]



①バス

②ふね

③でんしゃ

④ひこうき

⑤じてんしゃ

어휘영역으로 그림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사물을 답지에서 찾는 것으로, 단어를 알고 있는 수험자라면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항이다. 간단한

어휘력을 묻는 문제이지만 제시된 그림을 보면 단순히 탈것에 관한 그림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문화와 관련된 거리 풍경을 묘사하였다. 오사카성은 일본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반영한 것이며, 버스의 진행 방향은 일본의 교통법규면에서 우리나라와 반대 방향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3. 문법영역

문법 이해력 평가의 구체적인 하위 평가 요소는 어법에 맞는 표현과 잘못된 표현 찾기, 문장의 구조와 단어의 의미 연결, 적절한 시제 및 동사의 변화형 등을 파악할 수 있는가이다.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문법 교육은 오랜 기간 동안 강조되어 왔던 교육의 하나이다. 그러나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지나치게 문법 교육에 치중하는 것은 외국어학습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는 언어소통 즉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문법 교육에 익숙해 있는 우리들은 외국어 학습에 있어 독해력은 강한 학습자가 되었으나,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은 것 또한 문법 교육에 치중한 결과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 일본어과 교과과정은 의사소통기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으며, 학습내용 또한 일상생활에 활용이 가능한 일본어에 대한 이해력과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되고 있다. 문법 교육 역시 단순히 언어학적인 지식의 전달에 그치던 종전과는 달리 실제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도록 지도하고, 장면 속에서의 문형을 중심으로 지도되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장면에 맞게 문형을 이해한다는 것은 학습자에게 충분한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겠지만,학습자의 학습 성취도가 높아질수록 문법교육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발전적인 학습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의사소통능력 또한 효과적으로 향상되리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의 문법 교육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교육이라 생각한다.[5)]

제6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는 의사소통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제2외국어 과목에서 30문항 중 18문항이 의사소통 기능 문제이고 문법문제를 3문제만 출제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연스레 문법학습에 대한 관심을 감소시켰다. 언어 사용의 정확성 결여 등의 이유로 문법영역을 조금 더 강화하라는 의견이 반영되어 문항배점에서 문법이 3문항에서 5문항으로 늘이고, 의사소통이 18문항에서 15문항으로 감소시켰다.

---

5) 이미경(2006),「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일본어 Ⅰ』문형분석」, p.1.

<표 9> 문법 영역 유형별 문항분석표

세부항목	문 항 번 호								합계	비율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빈칸 채우기	7,8	7,8,9	7,9	7,8,9	7,8,9,10,11	7,8,9,10,11	7,9,10	7,8,9,10	27	87
해석하기	9								1	3
단어조합하여 올바른 문장만들기			8						1	3
쓰임이 다른것 고르기							8	11	2	7
합 계	3	3	3	3	5	5	4	5	31	100

문법영역의 유형을 보면 빈칸 채우기가 27문항으로 가장 많이 출제되어 문법영역 유형 87%를 차지하고 있다. 문법 영역 문항의 특성상 다양한 유형의 문항이 출제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표 10> 문법 영역 문항분석표

세부항목		문 항 번 호								합계	비율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동사활용	사전형			8						1	3
	ます형		9		7	11				3	10
	て형			7			8			2	7
	조건(가정)형				9			9	8,10	4	13
イ형용사 활용	명사수식형					8				1	3
	부정형		8							1	3
ナ형용사 활용	사전형								9	1	3
	명사수식형						7			1	3
	접속형				8	9				2	7
	동사수식형		7							1	3
조동사	부정					10				1	3
	전문							8		1	3

	비유·예시·불확실한 단정						11			1	3
조사	격조사	7,9		9		7	10	10	11	7	23
	접속조사						9	7		2	7
	부조사								7	1	3
	종조사	8								1	3
합계		3	3	3	3	5	5	4	5	31	100

분석 결과 조사를 묻는 문항이 11문항으로 36%, 동사의 활용 10문항 33%를 차지하고 있다. 2005학년도 시험부터 문법문항이 5문항으로 늘어나면서 조사의 쓰임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어휘영역분석에서도 명사, 동사, 형용사 등의 품사별로 분류해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문법영역의 분류에 있어서 어휘영역과의 차이점으로는 어휘영역의 품사는 기본형을 이해하는 취지에서의 문항분류였으며, 문법영역의 품사는 기본형에서 응용한 활용과 그 문법의 이해를 분류의 기본으로 삼았다.

<동사활용 (2004)>

9.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 キムさんは 漢字が ____ますか。
B: いいえ、まだ ひらがなしか ____ません。

① 読ま ② 読み ③ 読む ④ 読め ⑤ 読も

동사의 활용을 묻는 문법 문항이다. 동사는 종류에 따라 변화형태가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제시된 동사는 1류 동사로 연용형(ます형)에서는 'ウ'단이 'イ'단으로 바꾸는 규칙에 대해 묻고 있다. 문법영역에서는 동사의 활용을 묻는 문항이 10문제 출제되어 39%를 차지하고 있어 핵심이 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위 문항과 같이 조건(가정)형을 묻는 문항이 4문항 출제되었고 그 외 사전형, ます형, て형을 묻는 문항도 출제되었다. 동사의 ない형, 명령형, 의지(권유)형이 아직 출제 되지 않아 출제를 예상해 볼 수 있다.

<イ형용사활용 (2005)>

8.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 : おかあさんは 何を して いますか。 B : _____ りょうりを つくって います。

① おいしの　② おいしに　③ おいしな
④ おいしで　⑤ おいしい

イ형용사활용을 묻는 문항이다. 문법 영역의 어법에 맞는 표현 찾기로 분류할 수 있다. イ형용사의 활용을 묻는 문항은 명사수식형을 묻는 문항과 부정형을 묻는 문항 2문항만이 출제되어 4문항 출제된 ナ형용사의 활용을 묻는 문항보다 적음을 알 수 있다. 형용사의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イ형용사는 어휘영역에서 의미를 묻는 문항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며, ナ형용사는 문법 영역에서 활용을 묻는 문항으로 출제 되는 경향이 있다.

<ナ형용사활용 (2008)>

9.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こんどの 土ようびは _____から いっしょに 行きましょう。

① ひまだ　② ひまで　③ ひまな
④ ひまに　⑤ ひまの

な형용사의 활용을 묻는 문항이다. 사전형을 묻는 문항, 명사수식형을 묻는 문항, 동사수식형을 묻는 문항이 각각 1문항씩, 접속형을 묻는 문항이 2문항 출제되었다. な형용사의 ない형, で형, 과거형, 가정형, 추측형의 다양한 활용형을 묻는 문항이 출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동사 (2007-)>

8.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① この パンは おいしそうです。
② テレビを おもしろそうに みて います。
③ 山本さんは アメリカから きたそうです。
④ こどもが なきそうな かおを して います。
⑤ おじいさんも げんきそうで よかったです。

조동사의 의미에 관한 문항이다. 전문과 양태의 そうだ의 의미를 알고 다른 용법로 쓰인 것을 고르는 문항이다. 조동사를 묻는 출제된 총 3문항 중 2문항은 밑줄에 알맞을 조동사를 고르는 문형으로 출제되었고 위 문항은 완전한 문항을 보기로 제시하였다. 조동사를 묻는 문항은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예를 들어 양태의 そうだ 앞에 오는 동사의 활용에 묻는 문항처럼 자주 예시문으로 사용되고 있다.

<조사 (2006)>

9.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 歌を うたい_____ あるいて います。
° テレビを 見_____ ごはんを たべています。

① て ② たい ③ たり ④ ほしい ⑤ ながら

예시문의 빈칸을 두어 알맞은 접속조사를 고르는 문항이다. 위 문항에서 아쉬운 점은 조사를 평가하는 문항이므로 답지의 구성이 조사들로 이루어졌더라면 조사의 쓰임에 관해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조사의 쓰임과 문법적 의미를 묻는 문항은 동사활용과 마찬가지로 10문항이 출제되어 34%의 높은 출제율을 보이고 있다. 조사 중에서도 격조사를 묻는 문항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보다 다양한 조사의 쓰임을 묻는 문항이 출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의사소통기능영역

의사소통은 사람과 사람사이에 발생하는 상호 활동의 한 모습으로, 의사소통은 사람간의 상호 활동을 통하여 배우는 것이고, 사회적 상호 활동에 주로 쓰이는 것이다.

또한 의사소통은 항상 어떤 상황과 맥락 속에서 일어난다. 사람이 언어를 혼자 거울을 바라보며 하는 게 아닌 이상, 의사소통에는 언제나 특별한 상황과 맥락이 동반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과 맥락은 때론 의사소통에서 제한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것은 의사소통이 여러 가지 제한적 요건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징과도 맞물린다. 의사소통에의 참여자가 언제나 그 언어나 상황을 반드시 완벽하게 알고 있는 이상적인 화자나 청자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체로는 상대의 발화의 의미를 올바로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루어진 의사소통이 성공적이었는지 아닌지는 대개 실제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결국, 의사소통은 대화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의 교환을 통해 대화에서 유발 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감소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완전한 상태의 대화란 존재하지 않으며, 완전한 상태를 지향해 나가는 과정상의 문제인 것이다.

'의사소통 능력'이란 이러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으로, 화자와 청자의 언어 구조적, 심리 언어적, 사회 문화적 이해, 그리고 그 말이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과 사용 능력을 의미한다.

제7차 교육과정은 의사 소통 기능을 중시하는 6차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을 계승, 심화하였다. 예를 들면, 6차에서는 의사 소통 기능 예시문을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학습 목표의 기술은 어휘 · 어구 · 문장 등 구조적 학습단계에 맞춰 기술하였던 것과는 달리, 7차에서는 학습 목표를 의사 소통 기능의 달성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어서 명실상부하게 의사 소통 기능 중심의 교육과정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제6차 의사소통기능 항목의 경우 외국어 종류에 상관없이 천편일률적인 기능 항목을 적용하였고, 기능 항목 설정에 있어서도 분류 기준이 중복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7차에서는 언어별로 해당 언어의 특성에 맞는 의사소통 기능 항목을 독자적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6]

의사소통 기능이란 문법적 가능성을 파악하는 언어 능력이외에 그 문장이 문법적으로 맞으면서 실제 사용 가능한 말인가를 알아보는 실행 가능성, 그

6) 정선화(2004),「제7차 교육과정의 일본어 I 의 교과서 분석」, p.12.

말이 사용되는 상황에서의 적합성, 실제 사용할 때의 실전 가능성 등을 아는 언어능력이다. 다른 표현을 빌려 말하면 의사소통 능력이란 문법성 판단 능력, 실제 장면에서의 사용이 타당한가를 판별할 수 있는 사회 언어학적 능력 담화 수준에서 적합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담화능력, 담화를 지속적으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요령인 전략적 능력이 포함된 개념이다.

의사소통기능에 대한 평가는 제6차, 제7차 제2외국어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 영역에서 문항의 핵심을 이루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2001학년도부터 2004학년도까지 해마다 18문항이 출제되었고, 2005학년도에는 문법 영역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16문항으로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50%가 넘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의사소통 기능에 대한 평가는 제6차와 제7차 교육과정 사이에 차이가 있으므로 교육과정별로 나누어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 의사소통기능 영역 문항분석표Ⅰ(6차)

언어표현	언어기능	예 시 문	01	02	03	04	출제수	비율(%)
1 개인의 생각	가능성	あなたは運転ができますか。						
		雨が降りそうです。						
	소망과 의지	カメラがほしいです。	10			19, 24	3	6
		私もぜひ行きたいです。						
		もっとがんばります。						
	확신	あしたはきっと会えるでしょう。	11				1	1
		急げば間に合うと思います。						
	추측	吉田さんは来ないかも知れません。			15		1	1
		彼も行くだろうと思います。						
		つかれているようですね。						
2 개인의 느낌	희로애락	お会いできてうれしいです。						
		きのうの映画はとてもおもしろかったです。						
	감각적 느낌	これはおいしいですね。	13	16			2	3
		とてもいいにおいです。						
	좋거나 싫음	夏はあつくてきらいです。	12				1	1
		私は山にのぼるのが好きです。						
	정서적 느낌	ひとりでさびしかったでしょう。		27			1	1
		道が暗くてこわかったです。						
3 친교	인사	お元気ですか。	15	22	20	12	4	6
	초대	あしたあそびにいらっしゃいませんか	14				1	1

활동		。 あなたもぜひ来て下さい。						
	약속	今度の日曜日はどうですか。 あしたの午後三時に郵便局の前で会いましょう。						
	칭찬이나 격려	金さんは本当に歌が上手ですね。 かんばって下さい。		13, 15	14	18	4	6
	말의 중단이나 끝맺음	すみません。ちょっと待って下さい。 では、これで失礼します。						
4 일상적 대인관계	소개	はじめまして。ユンヒです。 どうぞよろしく。	16				1	1
	전화	もしもし、山田先生いらっしゃいますか。 もしもし、山本ですが李さんお願いします。		19			1	1
	감사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いろいろお世話になりました。	17	11			2	3
	사과나 변명	遅くなってすみません。 試験があったので行けませんでした。	18				1	1
5 권유와 의뢰	부탁과 요청	金さんの住所を教えていただけませんか。 私に行かせてください。				17	1	1
	승낙과 거절	はい、いいですよ。 けっこうです。 それはちょっと困ります。	20, 21				2	3
6 지시와 명령	주의나 경고	遅れないようにください。 この水は飲まないようにしてください。		24	13	11, 21	4	6
	허용	鉛筆で書いてもいいですか。 もう帰ってもいいです。			22	15	2	3
	충고	人に迷惑をかけてはいけません。 薬を飲んだほうがいいです。				14	1	1
	제안과 설득	先生に相談してみたらどうですか。 もう遅いから帰ったほうがいいんじゃありませんか。	26	23		23	3	4
	의무	約束は守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もう一度行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22				1	1
7 정보교환	사실 확인	きょうは水曜日ですね。 朴さんが先生にしかられたというのは本当ですか。		14	16,17,27		4	6
	설명	うちから学校まで歩いて30分です。	24	10,	10,	10,	10	17

		今度の旅行には山本さんも行くらしいです。		12,17	11	13, 20, 25		
	경험	あなたは日本に行ったことがありますか。 いいえ、私はまだ行ったことがありません。	23		25		2	3
	비교	バスと地下鉄とどちらが便利ですか。 地下鉄のほうが便利です。		18, 20		16	3	4
	의사표시	その問題は難しすぎると思います。 お名前を教えてもらいたいですが。	25		23	27	3	4
	동의나 반대	それでいいと思います。 そうですね。			19		1	1
8 문제해결	물건사기	これはいくらですか。 もう少し大きいのはありませんか。	27	21	26		3	4
	안내	駅へ行くにはどうしたらいいでしょうか。 3番バスに乗れば駅へ行けます。	19		18, 21	22	4	6
	보고	とても静かでいい所でした。 先生はもうお帰りになったそうです。		25	24	26	3	4
9 창조적 활동	가설	もしだれもいなかったらどうしましょう。 安ければ、私も買います。		26			1	1
	상상	あの子はいくつぐらいでしょう。						
	편지쓰기	お元気でいらっしゃいますか。 では、お体に気をつけてください。			12		1	1
합계			18	18	18	18	72	100

제6차 교육과정의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은 9개의 큰 항목과 하위분류로서 36개의 세부 항목을 해당 예문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2001~2004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는 9개의 큰 항목에서 모두 출제되었으며 세부항목에서는 31개의 항목이 취급되었다.

가장 많이 출제된 의사소통 기능은 총 72문항 중 23문항(35%)이 출제된 정보교환의 기능이다. 지시와 명령 기능이 11문항(15%)으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문제해결 기능 10문항(14%), 친교활동 기능 9문항(13%) 순이다.

의사소통 기능 영역의 문항은 대체적으로 9개의 전 기능에 걸쳐 고루 출제되었다고 판단되며 세부 항목에 있어서도 5개 항목에서만 출제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의사소통 기능의 세부항목으로는 개인의 생각의 가능성, 개인의 느낌의 희로애락, 친교활동의 약속과 말의 중단이나 끝맺음,

창조적 활동의 상상 기능이었다.

<표 12> 의사소통기능 영역 문항분석표Ⅱ(7차)

언어기능	언어표현	세부	예 시 문	05	06	07	08	출제수	비율(%)
1. 인사기능	일상의 인사	만남	おはようございます。						
			こんにちは。						
			こんばんは。						
			おひさしぶりですね。						
		헤어짐	さようなら。						
			おやすみなさい。						
			お気をつけて。						
			しつれいします。						
			じゃ、また。						
		자기소개	ナムサン高校のキムです。			16		1	1.5
			私、韓国のイと申します。						
		타인소개	田中さん、友だちのパクさんです。				22	1	1.5
			こちらは、東京高校の田中さんです。						
		초면인사	はじめまして。キムです。どうぞよろしく。	18	22			2	3
	안부		お元気ですか。						
	칭찬		キムさんは歌がお上手ですね。		15			1	1.5
			よくできました。						
	격려		がんばってください。						
	축하		たんじょうび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24			12	2	3
	감사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13	18	21	3	5
			おかげさまで。						
			先日は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あ。						
			いろいろお世話になりましや。						
	사과		おそくなってすみません。						
			おそれいりますが、…。						
	위로		お気の毒に。		18, 20			2	3
			おだいじに。						
2. 정	설명	안내	ここは図書館です。	16				1	1.5
		보고	きのうは学校で野球をしまし	23	12	17		3	3

보전달의기능			た。						
		사정·형편	水曜日は都合が悪いです。			13		1	1.5
		행동	日曜日には映画を見たりテニスをしたりしています。 テープを聞きながら会話を練習しています。	12	21	21		3	5
		상태	少し難しいですが、たのしいです。	17				1	1.5
		증상	おなかが痛いんです。						
		예정	大学で日本語を専攻する予定です。		27			1	1.5
		시간	バスで30分ぐらいかかります。						
		행위의 완료	会議は今始まったところです。						
		위치	学校のとなりに郵便局があります。 電話は階段の近くにあります。		14	20	15	3	5
		대비	見ることはすきですが、やることはあまりすきではありません。		19		24	2	3
		사정	急に体の具合いが悪くなってしまいまして。			24	17	2	3
		이유	かぜをひいたので病院へ行きます。						
	정보전달	전갈	田中さんも来るんだそうです。 今日もおそくなると言っていました。	22		27		2	3
		희망·의향	ワープロを習おうと思っています。 できるだけ行ってみるつもりです。 田中さんにあいたいですね。		17, 24			2	3
	제안		先生の相談してみるのはどうですか。	13		22	23, 25	4	7
	조언		はやく帰ったほうがいいですよ。 日光にしたらどうですか。						

			電車のほうがバスより速いとおもいます。						
	안심		だいじょうぶだから、心配する必要はありませんよ。						
	불필요		そんなに考えることはありませんよ。						
	자청		先生、それお持ちしましょうか。						
	대답	승낙	はい、わかりました。	25				1	1.5
		거절	いいです。				18	1	1.5
			もうけっこうです。						
			あいにく五時に約束があるんです。						
	추측		田中さんは来ないかもしれません。						
			雨が降りそうもないんですね。						
	의사표시		その問題はむずかしい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その問題はむずかしすぎると思います。						
3. 의사태도전달의기능	반론·의문제기		広いことは広いですが、すこしきたないですね。						
			こちらのほうがいいと思いますけどね。						
	부정·비난		そんなことはないですよ。				13	1	1.5
	태도보류, 판정회피		来るとは思うんですが。						
	놀람,의외의기분		八月なのに、わりにすずしいですね。	21				1	1.5
			一つしかないんですか。						
	희로애락		おあいできてうれしいです。				14	1	1.5
			きのうの映画は、とてもおもしろかったです。						
	반문		大阪へですか。	19				1	1.5
	유감		せっかく作ったのにもったい						

			ないですね。						
4. 요구기능	질문		ゆうびんきょくは、どこですか。	27	16, 23	15, 26	16, 19, 20, 26	9	14
	허가		えんぴつで書いてもいいですか。	15				1	1.5
	확인		いいお天気ですね。 田中さんの帰国は来週でしたね。 日本は物価が高いと聞きましたが。 電話しなくてもいいんですね。		25		27	2	3
	선택		コーヒーとジュースがありますが、どちらがいいですか。	26				1	1.5
	설명		お読みになりましたか。 どこか近くに安い店はありませんか。 郵便局に行くにはどう行ったらいいでしょう。 ワープロって何ですか。 この漢字、何て読むんですか。			14, 23		2	3
	의뢰		もうすこし大きいのはありませんか。 日本の新聞をお願いできますか。 教え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が。 明日来るように言ってください。 少し手伝ってくれませんか。	20		12, 19		3	5
	지시		本は明るいところで読んでください。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	14		25		2	3
	의무		約束はまも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금지		夜はおふろに入らないでください。 ここではたばこを吸ってはいけません。						

5. 담화전개기능	담화의 시작	서두(주의환기)	あの、ちょっとよろしいですか。						
			ちょっとお伺いしたいことがあるんですが。						
		화제제시	実は、かんげいかいをしたいと思いましてね。						
			勉強のことで相談があるんですが。						
			試験のことなんですが。						
	담화의 전개	구어체	ところで、						
		문장체	さて、						
	화제의 전환		話はかわりますが、						
	담화의 종결		それじゃしつれいします。		26			1	1.5
			どうも失礼しました。						
합계				16	16	16	16	64	100

제7차 교육과정의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은 5개의 큰 항목과 하위분류로서 38개의 세부 항목을 해당 예문과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6개의 세부항목은 또 다시 몇 가지의 내용으로 구분된다.

2005~2008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는 5개의 큰 항목에서 모두 출제되었으며 세부항목에서는 21개의 항목이 취급되었다. 가장 많이 출제된 의사소통 기능은 총 64문항 중 27문항(41%)이 출제된 정보전달의 기능이다. 요구 기능이 20문항(31%)으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인사 기능 12문항(18.5%), 의사태도전달의 기능 4문항(6%) 순이다.

2001~2004학년도의 의사소통기능 문항의 항목 구분과 예시문의 내용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영역은 정보기능과 관련된 항목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38개의 세부영역 중 21개의 항목 밖에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고른 영역에서 출제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표 13> 의사소통기능 영역 유형별 문항분석표

세부항목		문항번호								합계	비율(%)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의사소통기능 측정	문맥에 맞게 빈칸 채우기	15,16,18,21	13,15,16,17,22,23,26	10,14,16,22,24	10,12,15,17,18,20,21,23,27	13,14,16,17,19,20,21,22,24,25	18,20,22	16,18,27	13,14,20	44	32
	내용일치문 고르기		25	19,21,23,25	19		27	14,17,21,24	21,25	13	10
	그림↔설명	19,24	10,18		13,26	12	14,21	22	17	11	8
	주제 찾기	14,27	27	12,13,15,18	11,14,22	18	17,25	20,25	23	16	12
	대화문의 의도파악					15	15		12	3	2
	밑줄 친 말의 의미	20					13	15	18	4	3
	질문(요구)에 맞는 답 고르기	12,23,26	12,14	17,26,27	16,24,25	23	19,23	13,23	15,26,27	19	14
	순서대로배열하기		21						24	2	1
	자연스러운 문장 고르기			20		27			16	3	2
의사소통기능 이외의 기능 측정	발음·문자	17								1	1
	어휘	13	11,19,20	11		26	12,16,24,26	12,19,26	19,22	15	11
	문법	10,11,22,25	24							5	4

합 계	18	18	18	18	16	16	16	16	136	100

의사소통 기능 문항을 유형별 세부 항목으로 분류한 결과를 보면 총 136문항 중 대화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문맥에 맞게 빈칸을 채우는 유형이 44문항(32%)으로 가장 많이 출제되었고 그 다음으로 제시문을 읽고 질문이 요구하는 답을 고르는 유형이 19문항(14%), 제시문의 주제를 찾는 유형이 16문항(12%)순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대화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유형이 추가 되었을 뿐 별다른 차이점은 없다.

그러나 원래는 의사소통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지만, 실제 문항 내용은 의사소통 이외의 다른 기능을 평가하는 문항이 21문항(16%)출제 되어 의사소통 기능 문항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2001학년도는 처음으로 시험이 실시된 연유로 18문항 중 6문항(33%)이 의사소통 이외의 기능을 평가하는 문항이 출제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안이 요구되어 진다.

<문맥에 맞게 빈칸 채우기 (2006)>

18. 그림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① こんにちは　② おだいじに　③ いただきます
④ いらっしゃいませ　⑤ おひさしぶりです

의사소통기능 영역의 인사기능 항목 중 위로 기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의사 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는 원칙 아래 생활외국어의 활용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 문항과 같이 문맥에 맞게 대화를 완성하는 유형의 문항은 136문항 중 44문항이 출제되어 32%의 높은 출제율을 보이고 있다. 위 문항처럼 의사소통기능 영역의 예시문을 정답지로하고 비교적 평이한 지문과

답지로 구성된 문항을 많이 출제되었다. 기본적인 인사말을 묻는 문항이므로 수험자는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므로, 정답률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맥에 맞게 빈칸 채우기 (2002)>

13.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A : あした なにを する つもりですか。
B : あしたは テニスの 試合に 出ます。
A : そうですか。では、＿＿＿＿＿＿。
* テニス : 테니스 * 試合 : 시합

① のんで ください　② ひいて ください
③ はなして ください　④ すわって ください
⑤ がんばって ください

의사소통 기능 영역의 친교활동 항목 중 칭찬이나 격려에 대한 기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위 문항의 답지는 모두 「 ～てくださ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의 의미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하기보다 어휘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답지에 여러 문형을 제시하면 좋을 것이다.

<내용일치문 고르기 (2003)>

25. 다음은 준호의 일기이다.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あした チェジュド(濟州道)へ 行く。 ぼくは チェジュドへ 行った ことが ない。 ぼくは 旅行が 好きなので、とても うれしい。 いっしょに 行く 友だちと 写真も たくさん とりた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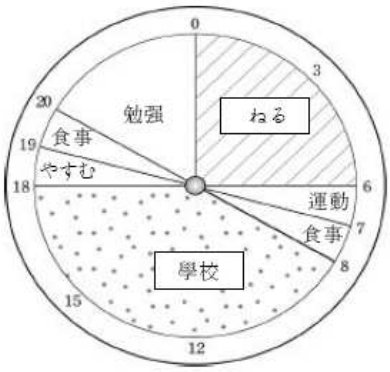
① 준호는 여행을 좋아한다.　② 준호는 매우 기뻐하고 있다.
③ 준호는 내일 여행을 간다.　④ 준호는 혼자서 여행을 간다.
⑤ 준호는 제주도에 처음 간다.

비교적 장문의 지문을 제시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의 문항이다. 위 문항을 보면 내용 가운데 의사소통 기능 영역의 경험, 희망, 개인의 느낌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일기문의 내용을 구성하는 항목일 뿐 평가 목표 자체가 의사소통 기능을 평가한다기보다 독해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2003년도, 2007년도의 경우 독해지문이 4문항

씩 출제되었는데 수험생들이 풀기에는 많은 양이므로 1~2문제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림↔설명 (2005)>

12. 일과표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1점]



午前ろくじからしちじまでは_____。

① ねます　② やすみます
③ 運動を します　④ 食事を します
⑤ 勉強を します

의사소통 기능 영역의 정보 교환 항목의 설명이나 묘사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다. 위 문항처럼 그림이나 표를 보고 일본어 문장을 완성하는 유형의 문항은 해마다 1~2문항씩 출제되고 있다. 답지에 그림이나 표의 내용을 설명하여 고르는 유형에서 그림이나 표를 표고 제시된 문장을 완성하는 단순한 형식으로 출제 경향이 바뀌었다.

<주제 찾기 (2002)>

27. 다음 대화의 화제로 알맞은 것은? [2점]

A : 今日は ほんとうに おもしろかったですね。
B : そうですね。先週 みたのは 悲しかったですが。
A : あれは ほんとうに そうでしたね。
B : 今度 また みに 行きましょう。
A : はい、そう しましょう。

① 散歩　② 勉強　③ 買い物
④ 天気　⑤ 映画

대화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무엇에 관해 이야기 하는지 그 주제를 유추하는 문항이다. 대화문에는 의사소통 기능중 개인의 느낌 항목의 희로애락이나 의견 교환 항목의 동의나 반대에 관한 문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기능 자체를 평가하기보다는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지를 묻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문항은 답지가 일본어 단어로 제시되어 있어 어휘영역 문항과도 비슷하다. 다른 영역의 유형과는 차별된 의사소통 영역 문항이 출제될 필요가 있다.

<대화문의 의도파악 (2005)>
15. B의 의도로 알맞은 것은?[1점]

A : この パン 食べても いいですか。 B : はい、どうぞ。

① 거절 ② 허락 ③ 사과 ④ 칭찬 ⑤ 비난

의사소통 기능 영역의 요구기능 항목 중 허가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다. 위 문항처럼 대화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유형의 문항은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2005년에 처음 출제된 유형으로 6차와는 바뀐 의사소통 기능 항목을 평가하는 의도로 보여진다.

<밑줄 친 말의 의미 (2006)>
13.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같은 것은?

A : なかへどうぞ。 B : しつれいします。これ、おみやげです。どうぞ。 C : どうもすみません。

① げんきです ② ざんねんです
③ おじゃします ④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⑤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의사소통 기능 영역의 인사기능 항목 중 감사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다.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묻는 문항은 4문항이 출제되었는데, 2007년의 문항의 'でかけます'의 사전적의미를 묻는 문항을 제외하고는 언어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있다. 'すみません'은 상황에 따라 감사, 사죄 표현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위 문항의 경우 감사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상황에 맞는 언어 사용 능력의 신장을 더욱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와도 부합된 적절한 문항이었다고 생각한다.

<질문(요구)에 맞는 답 고르기 (2004)>

16. 대화 내용으로 보아 파리의 현재 시간은?

A: パリは 今、何時ですか。 B: 東京より 8時間 おそいです。 A: 今、東京が ごぜん 10時ですから……。

① ごぜん いちじ　② ごぜん にじ　③ ごぜん よじ
④ ごご はちじ　⑤ ごご じゅうじ

의사소통 기능 영역의 정보교환 항목 중 비교에 관한 기능을 평가하기위한 문항이다. 대화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한 다음, 그 내용을 통해 질문에서 요구하는 바를 유추해내는 유형으로 문맥에 맞게 빈칸을 채우는 유형 다음으로 출제가 많이 되었다. 위 문항은 시간 표현에 관한 일차적이고 단순한 지식이 아닌 수험생들의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항이다.

<순서대로배열하기 (2008)>

24. 빈칸에 들어갈 말은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鈴木 : 佐藤さん、引っ越ししたそうでうね。 佐藤 : _____。 鈴木 : _____。 佐藤 : _____。 ＊引っ越し : 이사

<보기> a. そうですか、よかったですね b. ええ、前より 大学に 近く なりました c. でも、近くに スーパーが ないんですよ。

① a - b - c　② a - c - b　③ b - a -c
④ b - c - a　⑤ c - b - a

의사소통 기능 영역의 정보전달의 기능 항목 중 대비에 관한 기능을 사용한 문항이다. 보기에 제시된 대화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순서를 올바르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를 묻는 유형으로 차기 시험에서도 출제를 권장할 만항 유용한 문제유형이라고 평가되지만 2문제만이 출제되어 출제율이 매우 낮다.

<자연스러운 문장 고르기 (2005)>

25. 대화가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① A : お元気ですか。
B : 韓国人です。

② A : 家は ちかいですか。
B : じょうずです。

③ A : しけんは いつですか。
B : 水ようびです。

④ A : これは さかなですか。
B : はい、ねこです。

⑤ A : 川が 見えますか。
B : はい、おもいです。

의사소통 기능 영역의 요구기능 항목 중 질문에 관한 기능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연스러운 대화문을 고르는 유형으로 전체 3문항이 출제되어 순서대로 배열하는 유형과 마찬가지로 출제율이 매우 낮다. 이 문항은 원래 듣기 영역의 이해기능으로 출제하면 더 좋은 문항이나 듣기 시험 시행상의 어려움으로 일기 중심의 평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문항이다.

<의사소통기능 이외의 기능 측정 - 발음·문자 (2001)>

17. 다음 밑줄 친 곳을 바르게 읽은 것은? [1점]

たいへん お<u>世話</u>に なりました。

① せかい ② にわ ③ せわ ④ かわ ⑤ せき

의사소통 기능 영역의 일상적 대인 관계 항목 중 감사에 관한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상 이 문항은 밑줄 친 부분의 한자 어휘를 바르게 읽는 어휘 영역 평가이다.

2001년 첫 시행된 일본어 평가에서는 특히 의사소통기능 영역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제시문이 의사소통 기능을 평가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짧은 단문 유형으로 되어 있거나, 선택지로서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경우 등과 같이 평가 문항으로는 적절하지 않았다. 원래는 의사소통 기능을 평가하

기위한 문항이지만, 실제 문항 내용은 의사소통 이외의 다른 기능을 평가하는 문항이 6문항 출제되었다. 발음·문자 와 어휘 유형의 문항이 각각 1문항씩, 문법 유형 문항이 4문항 출제되었다.

<의사소통기능 이외의 기능 측정 - 어휘 (2006)>
26.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 : もしもし。キムですが, すずきさん いらっしゃいますか。 B : 今 出かけて いますが。 A : あ、そうですか。じゃ、_____ お電話します。 ＊もしもし : 여보세요

① なぜ ② また ③ もし ④ いくら ⑤ とても

의사소통 기능 영역의 담화전개기능 항목의 담화의 종결 기능을 제시한 문항이다. 선택지에서 알맞은 부사를 고르는 문항으로 어휘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어휘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항이어서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서의 차별성을 갖지 못했다.

<의사소통기능 이외의 기능 측정 - 문법 (2001)>
25.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A : 日本語の 試験は むずかしい_____ 思いますか。 B : いいえ、やさしい_____ 思います。

① が ② と ③ へ ④ で ⑤ を

의사소통 기능 영역의 정보 교환 항목의 의사표시 기능을 제시한 문항이다. 문항자체는 ‘と思う’문형을 사용하여 의사 표현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지만, 실제로는 조사 ‘と’의 용법을 묻는 문법 문항에 가깝다. 이처럼, 원래는 의사소통 기능을 평가하려는 문항이었지만, 실제로는 문법 지식을 평가하는 문항이 되었다. 평가 목적에 맞는 타당성 있는 평가 문항의 출제가 요구된다.

5. 문화영역

제7차 교육과정의 커다란 특징 중 하나가 문화 항목이 언어재료에 추가된 것이다.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언어 교육에 있어 문화적인 이해 없이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성립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어는 간접적인 표현이 두드러지는 언어라는 점에서 한국인의 언어생활과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생활의 차이를 모르고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문화 이해 능력의 평가는 초기 외국어 학습 수준에서 사실상 폭넓은 의미의 문화 이해에 대한 평가를 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해당 외국어 사용국가의 일상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문화와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문화이해 평가의 범위를 규정지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평가내용은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과 관련된 일상적인 생활에 관한 것과 취미, 오락, 스포츠, 여행, 등 여가 선용에 관한 것, 각 나라에 독특한 문화, 예컨대 요리, 음악, 무용, 문화재 등에 관한 것이다.

<표 14> 문화 영역 문항분석표

세부항목	문 항 번 호								합계	비율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일본개관				29			29		2	8
지 역		30			28				2	8
연중행사			30				28	29	3	13
음 식			29				30		2	8
의 복				28		30			2	8
대중교통						29			1	4
예 절	28								1	4
스포츠		29							1	4
안내자료	29	28	28		30				4	18
언어행동	30			30	29	28		28,30	6	25
합 계	3	3	3	3	3	3	3	3	24	100

분석결과 언어표현이 6문항 25%로 가장 많이 출제되었고, 안내자료 4문항 18%, 연중행사 3문항 13%를 차지하고 있다. 비교적 다양한 항목에서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개관 (2004)>

29. 일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끼리 짝지은 것은? [2점]

(1) お金は 円を 使って います。
(2) 島は ふたつしか ありません。
(3) 食事の ときに はしを よく 使います。
(4) 車は 韓国と 同様に 道の みぎの ほうを はします。
*同様に: 마찬가지로

① (1)-(2) ② (1)-(3) ③ (2)-(3) ④ (2)-(4) ⑤ (3)-(4)

일본 문화의 전반적인 이해를 묻고 있는 일본 개관에 관한 문항이다. 이러한 유형의 문항은 2문항이 출제되었다. 위 문항은 일본의 화폐, 지형, 음식문화, 교통문화를 다루고 있다. 답지 (3)의 식사할 때 젓가락을 자주 사용한다는 내용은 우리나라와 공통점이기 때문에 일본에 국한되는 설명은 아니다. 보다 일본의 음식문화를 평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지 역 (2005)>

25. 다음 설명이 가리키는 지역은?[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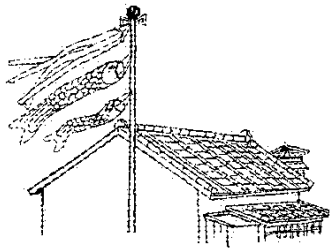
° 冬は とても さむいです。
° さっぽろ(札幌)が あります。
° いちばん きたの ほうに あります。
* いちばん : 가장

① しこく(四國) ② おおさか(大阪)
③ とうきょう(東京) ④ きゅうしゅう(九州)
⑤ ほっかいどう(北海道)

일본의 지역을 묻는 문항이다. 제시된 지문은 교과서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로 이루워졌기 때문에 수험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선택지를 위치의 규칙성 즉 北海道, 東京, 大阪, 四国, 九州의 순으로 제시하지 않은 점은 문항 지침 사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답에 대한 단서를 배제해야 한다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연중행사 (2003)>

30. 그림과 관련이 있는 것은?



① おぼん
② こいのぼり
③ ひなまつり
④ おしょうがつ
⑤ たんじょうび

일본 문화에서 연중행사를 묻는 문항이다. 장대 높이 잉어가 날아가고 있는 삽화의 내용은 5월5일 단오날에 남자 아이를 위해 행하는 행사를 가리키고 있다. 사내아이의 입신출세를 바라는 의미로 잉어를 그린 종이나 천이 바람에 나부끼어 잉어가 힘차게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에서 마치 용이 등천하는 의미를 엿볼 수 있다. 연중행사를 묻는 문항은 3문항이 출제되었으나 그 중 2문항이 'こいのぼり'와 관련된 문항이였고, 위 문항은 단순 어휘를 묻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일본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의 문화를 일본에 소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일본의 연중행사와 우리나라의 연중행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문항 다양한 내용의 문항이 요구된다.

<음 식 (2007)>

30.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いそがしい ときに べんりです。 ° ふつう はしが ついて います。 ° えきで よく みる ことが できます。

① きもの　② すもう　③ まつり
④ べんとう　⑤ たんじょうび

음식문화에 관한 문항이다. 음식문화에 관한 문항은 ‘すし(스시)’와 ‘べんとう(도시락)’을 정답으로 요구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 그 외 언어 표현에서 식사예절에 관해 2문항이 출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시락은 흔히 사용되고 있으므로 위 문항은 어휘영역에 가깝다. 일본의 식단에서만 볼 수 있는

일본 고유의 음식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의 복 (2006)>

30. 다음 설명이 가리키는 것은?

° むかしからの きものの ひとつです。 ° なつの まつりや はなびの とき よく 着ます。 ° ふつう げたと いっしょに 着ます。 ＊げた : 일본의 전통 신발

①

②

③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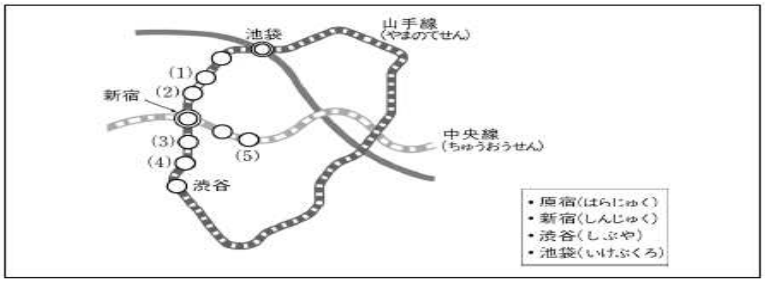
⑤

일본의 전통의상 ‘ゆかた’에 관한 문항이다. 제시문의 ‘げた’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기본 어휘표와 의사 소통 기능 예시문에 없는 단어이므로 주석이 달려 있어, 주석을 보고 수험생들이 의복에 관한 정답을 유추할 수 있었을 것이다.

<대중교통 (2006)>

29.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전철 노선도에서 A가 가고자 하는 역은?

A : すみません。原宿へは どう 行ったら いいですか。 B : 原宿ですね。 まず この 電車に のって 新宿まで 行って ください。 そこで 渋谷方面の 山手線に のって、ふたつめの えきです。 A :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方面 : 방면 ＊~め : ~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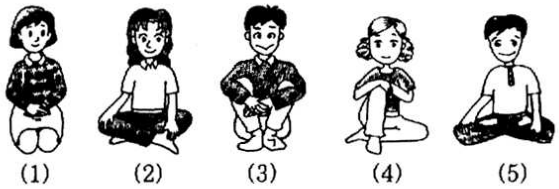


①(1)　②(2)　③(3)　④(4)　⑤(5)

그림을 보면서 설명에서 지시하는 곳을 찾아가는 길 안내 유형의 문항이다. 대화문은 의사소통기능의 길 안내 영역이므로 의사소통기능을 평가하고 있지만, 일본의 실제 역 이름을 제시한 전철 노선도를 제시하여 실제로 일본에 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노선도를 보며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으므로 문화영역 범주에 포함시켰다. 제시된 전철 노선도는 전철이 있는 대도시 수험생만이 흔히 접할 수 있어 특정 집단에 유리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예 절 (2001)>

28. 다음 그림은 여러 가지 앉는 자세이다.



正座を する 時は、たいてい ひざと ひざが つきます。
外国人には むずかしいです。
* 正座 : 정좌.　* ひざ : 무릎

위의 설명으로 보아 일본인의 예의바른 자세인 '정좌'에 해당하는 그림은? [1점]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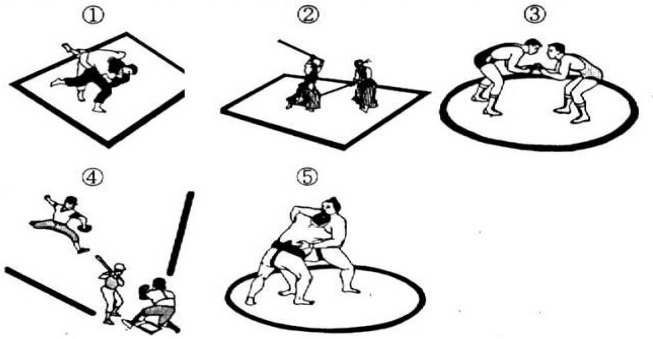
일본의 생활예절에 관한 문항으로 문화영역에서는 위 문항 1문항만이 출제되었다. 질문에서 수험생들이 정답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어 제시문을 읽지 않아도 문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의 바른 자세로

(1)을 꼽을 수 있으므로 제시문 중 '外国人はむずかしいです。(외국인에게는 어렵습니다.)'의 '外国人'을 '西洋人(서양인)'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탕하다고 생각된다.

<스포츠 (2002)>

29.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운동 경기는? [1점]

- ふたりで します。
- まるい ところで します。
- むかしから 日本人の すきな スポーツの 一つです。



일본의 스포츠에 관한 문항으로 1문항이 출제되었다. 제시문은 총 3개의 문장이 이루어져있고 1문장씩 읽어 가면서 보기 중에서 정답의 범위를 조금씩 좁혀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제시문은 비교적 기초 어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문항으로 파악된다.

<안내자료 (2005)>

30. 그림과 설명으로 보아 가장 관련 있는 것은?

	° お金を はらいます。 ° からだを あらいます。 ° 中に 大きい ふろが あります。

① 은행 ② 음식점 ③ 미용실
④ 화장실 ⑤ 대중목욕탕

일본인 실제생활에서 사용되는 안내 자료에 대한 문항이다. 출제지침에 사실자료를 활용할 것으로 지시하고 있는 만큼 출제지침에 더욱 부합된 문항이라고 볼 수 있다. 안내 자료에 관한 문항 4문항 중 복사집, 기차역, 주택 임대를 요구하는 문항은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만의 특색을 느낄 수 없었다. 위 문항은 한국과 비슷한 문화인 목욕 문화를 실물 사진으로 제시함으로서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사진의 '湯'문자를 보고 수험생들이 정답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보기에 제시되어져 있는 단어들은 현 교과서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는 단어들이므로 한국어가 아닌 일본어로 제시하였다면 좀 더 일본어 문항다운 문항이 되었으리라 판단된다.

<언어 행동 (2008)>

30.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① なんですが　　② なにか いますか
③ なにが ありますか　　④ なにも いませんが
⑤ なにも ありませんが

언어 속에는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문화가 녹아 담겨져 있다. 7차 교육과정 문화 항목에 일본인의 언어 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포함한 것은 일본어과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인의 언어 행동에는 초면에는 가족 구성이라든지 수입, 나이와 같은 개인적인 것에 관한 화제를 피하는 것, 유머도 상대방과 관련된 화제를 피하고 발음을 이용한 익살(だしゃれ)이 많다는 것, 맞장구의 빈도가 높은 것, 명령이나 부정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 남에게 폐 끼치는 것을 싫어하는 것, 악수가 생활화되어 있지 않은 것 등이 언어 생활에 반영되어 있다.

일본어에서는 자기의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는,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완곡적이고 우회적인 패턴의 표현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と思います(~라고 생각 합니다 : 자신의 의견 진술시','~はちょっと……(~은 좀…… : 거절시 뒷부분의 부정의 말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させていただけませんか(시켜 받을 수 없겠습니까? : ~해도 될까요? 라는 표현을 상대방에게 허가를 구한다는 의미로써 표현한다)' 이러한 언어적 양상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일본의 문화적 성격을 언어라는 매체를 통해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7)]

언어표현에 관한 문항은 문화영역의 24문항 중 6문항이 출제되어 25%의 가장 높은 출제율을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위 문항처럼 일본어표현과 한국어표현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비교한 문항이 2문제, 일본인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묻는 문항이 4문제 출제되었다. 그 중에는 어휘능력을 평가하는 문항도 있어 언어행동에 관한 영역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7) 박현주 (2007),「고등학교 교과서 일본문화 항목분석과 재고」, p.9.

4. 결론

본 연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 영역 평가가 처음 실시된 2001학년도부터 2008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 영역 일본어과 시험 문항 240문항을 분석해 보았다.

출제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영역의 하위요소인 발음 및 문자, 어휘, 문법, 의사소통기능, 문화 영역별로 나누어 해당하는 문항들의 내용과 출제지침에 부합하는지를 알아보고 유형별 문항 분석을 통해 형식적인 면도 살펴보았다.

분석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첫째, 발음 및 문자영역에서 내용별 세부영역 분석 결과 총 24문항 중 발음영역에서 4문항, 문자영역에서 20문항이 출제되어 문자 영역에 출제가 치중되어 발음영역의 출제가 소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발음영역에서는 의미 변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청음 · 탁음의 구별, 발음기호, 장모음, 발음의 길이에 관한 문항이 출제되었다. 출제되지 않은 세부항목으로는 'ち, つ' 음이나 악센트, 모음의 무성화, 억양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의미 변별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우리말에 없거나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출제지침에서도 발음 및 문자의 식별력은 학습초기에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학습요소이지만 평가 내용 요소 전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게 두지 않았다. 그러나 처음 잘못된 발음을 배우면 그 발음이 습관화 되어 고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좋은 발음 습관을 위해 발음영역에 대한 문항의 비중이 더욱 요구된다.

문자영역에서는 총 10문항 중 히라가나를 묻는 문항이 10문항으로 50%, 한자를 묻는 문항이 5문항으로 25%, 가타카나를 묻는 문항이 4문항으로 20%를 차지하고 있다. 히라가나를 묻는 문항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실제 가타카나의 사용 비율도 높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다면 가타카나를 묻는 문항의 출제도 요구된다.

일본어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표기용 한자(733자)는 교과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나타낸다. 그러나 표기용이므로 반드시 쓸 수 있는 수준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읽을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한자를 묻는 문항의 비중은 줄여야 할 것이다.

둘째, 어휘영역에서는 총 25문항 중 명사를 묻는 문항이 17문항으로 68%이고, 동사를 묻는 문항이 4문항으로 16%, ｲ형용사와 조사를 묻는 문항이 각각 2문항 씩 출제되었다. 명사에만 치중되어 출제되었는데 다양하고 풍부한 일본어 표현을 위해서는 동사와 형용사의 의미를 묻는 문항도 출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항의 유형을 살펴보면 상위어를 이해하고 하위어를 찾는 유형, 하위어를 이해하고 상위어를 찾는 유형, 반의어를 묻는 유형, 관용구를 묻는 유형, 주제어를 찾는 유형, 빈칸의 어휘를 고르는 유형, 그림의 어휘를 고르는 유형 7개 유형이 있다. 일본어 영역 총 30문항 가운데 어휘영역은 10%에 해당하는 3개의 문항이 출제된다. 출제 문항수에 비해 다양한 문항의 유형이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림, 표 등을 활용하여 수험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문항이 많이 출제되었다.

어휘는 많은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운 단어라도 그 어감과 사용법을 알고 사용하는 것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어휘력 평가 문항에서는 장면과 함께 제시하여 언어의 종합적인인지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문법영역에서는 총 31문항 중 조사를 묻는 문항이 11문항으로 36%이고, 동사의 활용을 묻는 문항이 10문항으로 33%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의 세부항목 중 격조사 쓰임에 관한 문항이 7문항으로 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동사의 활용 중 조건형을 묻는 문항이 4문항으로 13%를 차지하고 있다.

동사, ｲ형용사, ﾅ형용사의 경우 수식형, 접속형, 부정형 등 변화형에 관한 문법지식을 평가하는 문항이였고, 조사와 조동사의 경우 어법에 맞는 표현, 잘못된 표현을 찾아 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의 유형을 살펴보면 빈칸 채우기, 해석하기, 단어 조합하여 올바른 문장 만들기, 쓰임이 다른 것을 고르기 4가지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그 중 빈칸을 채우는 유형이 27문항 출제되어 8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문법을 묻는 유형은 거의 한 유형으로만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학년도부터 출제의 비중이 3문항에서 5문항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법 문항의 유형은 한 유형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법적 사고력을 요하는 종합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그림이나 표 등을 사용하여 다양한 유형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의사소통기능 영역은 제6차 교육과정에 속한 2001~2004학년도, 제7차 교육과정에 속한 2005~2008학년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6차 교육과정에서의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은 9개의 큰 항목과 36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었다. 2001~2004학년도 의사소통기능 평가는 큰 항목 9개와 세부항목 31개에서 취급되어 전체적으로 고루 출제되었다. 그 중 가장 많이 출제된 기능은 총 72문항 중 23문항(35%)이 출제된 정보 교환의 기능이고 그 다음으로 지시와 명령 기능이 11문항(15%) 출제되었다.

7차 교육과정에서의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은 5개의 큰 항목과 38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었다. 2005~2008학년도 의사소통기능 평가는 큰 항목 5개와 세부항목 21개에서 취급되어 몇몇 기능에 출제가 치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이 출제된 기능은 총 64문항 중 27문항(41%)이 출제된 정보전달의 기능이고 그 다음으로 요구 기능이 20문항(31%) 출제되었다. 그에 따라 한 번도 출제 되지 않은 세부 영역이 많이 나타났다. 출제되지 않은 기능으로는 사과, 행위의 완료, 조언, 안심, 불필요, 추측, 태도 보류 및 판정 회피, 유감, 화제의 전환 등이 있다. 특히 의사태도전달의 기능 중, 태도 보류 및 판정 회피는 명령이나 부정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일본인의 언어 행동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인데도 출제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

6차와 7차 모두 정보의 교환 · 전달 기능, 지시와 명령 · 요구 기능에서 출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다양한 의사소통기능 항목에서 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항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의사소통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였으나 실제 평가 내용은 발음 및 문자, 어휘, 문법영역을 평가하는 문항이 21문항 출제되어 16%를 차지하고 있어 의사소통 영역의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항의 특징은 지문에서 단어 단위에 빈칸을 두는데 문장 단위로 빈칸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더욱 심도 있게 문항을 검토하여 평가 목적에 맞는 타당성 있는 평가 문항의 출제가 요구된다.

다섯째, 문화영역에서는 총 24문항 중 언어행동에 관한 문항이 6문항 출제되어 25%의 가장 높은 출제율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 일본개관, 식생활, 연중행사 등의 내용으로 골고루 출제되고 있다.

언어 행동에 있어서는, 맞장구의 빈도가 높은 것, 명령이나 부정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 남에게 폐 끼치는 것을 싫어하는 것, 악수가 생활화되어 있지 않은 것 등이 언어 생활에 반영 되어 있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언어행동에는 식사를 시작할 때의 인사말, 우리말

과 일본어의 관용구의 차이, ‘お(ご)’의 사용 등에 관한 문항이 출제되었다. 어휘영역과 의사소통기능 영역에서의 문항과 비슷하여 문화영역만의 차별성을 갖지 못했으며, 일본인의 언어 행동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일본의 연중행사를 평가하는 문항은 총 3문항 출제되었다. 2003학년도와 2008학년도에 ‘こいのぼり’에 관한 문항이 중복 출제되었는데 좀 더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배경이나 지식 없이 어휘력만으로 풀 수 있는 문항이 다소 보여 앞으로는 문화 교육의 목표와 방향에 맞는 다양한 내용의 문항개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영역 일본어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출제기준에 비교적 적절하게 출제되었으며, 시험실시 초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예시문과 선행문에 정답의 단서가 노출되었던 점과는 달리 해를 거듭할수록 문항의 질적 내용이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변별력 있는 타당한 문항의 제작이다. 모두가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문항의 구성은 일본어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출제자들은 수험생들이 입시 문항을 통해 학업 성취에 대한 만족감과 일본어 학습동기 유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적절한 난이도 조절과 함께 변별력 있는 평가 문항을 출제하도록 꾸준히 연구해 나가야 한다.

본 논문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문항이 평가도구로서 타당한가를 분석한 자료로서의 의미와 현장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참고자료로, 차기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 출제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면서 본고를 마치고자 한다.

參考文獻

<단행본>

한국교육과정평가원(1999).『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 영역 출제지침 개발연구 -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에스파냐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4).『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매뉴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5).『대학수학능력시험 10년사 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행자(2005).『제7차 교육과정의 중·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 어휘 분석』. 동아시아일본학회

<학위논문>

이진희(2002).「일본어 수학능력시험에 대한 문항 분석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윤선(2005).「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김민철(2006).「대학수학능력시험 일본어과 문항 분석」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영호(2006).「일본어과 수학능력시험 분석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규옥(2006).「대학수학능력시험 일본어과 문항 분석」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성희(2006).「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 평가영역에서 일본어 문항분석 및 개선방안」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길현(2006).「대학수학능력시험 일본어과 문항분석」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계한(2006).「제7차 교육과정 일본어교과서와 대학수학능력시험문항 분석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신영(2007).「2001-2007학년도 프랑스어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영(2007).「2005-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국어Ⅰ문항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진(2006).「韓国人 日本語 学習者의 日本語 漢字읽기 教育에 관한 研究」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경(2006).「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일본어 Ⅰ』문형분석」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선화(2004).「제7차 교육과정의 일본어Ⅰ의 교과서 분석: 의사소통 기능을 중심으로」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현주 (2007).「고등학교 교과서 일본문화 항목분석과 재고: 제7차 교육과정 일본어1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일어교육	학 번	20058228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이 유 정 한문: 李 宥 貞 영문: Yoo jung Lee				
주 소	광주시 북구 문흥2동 상록아파트 101동1802호				
연락처	011-623-3628 E-MAIL: addhelp@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대학수학능력시험 일본어과 문항 분석 연구 : 2001~2008학년도 문항을 중심으로 영문 :A Study on the Item Analysis of Japanese in National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 Centering on the Items in 2001~2008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8년 7월 일

저작자: 이 유 정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